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제안한 한국 치위생학 연구의제 분포

이가영 · 이선미¹ · 김창희² · 배수명³ · 김남희^{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¹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²충청대학교 치위생과, ³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⁴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Distribution of the Korean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Suggeste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Affiliated Groups

Ga-Yeong Lee, Sun-Mi Lee¹, Chang-Hee Kim², Soo-Myoung Bae³, and Nam-Hee Kim^{4†}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d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16328,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 Cheong University, Chungju 28171,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⁴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26426,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alize research demands by gathering the research agenda from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affiliated groups through a Delphi survey. The study subjects were the heads of eight groups.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by e-mail after a researcher explained the objective of the study to the heads. The research agend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orean dental hygiene academic classification and the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classification. To compare the number of research agenda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among the groups, we conducted a chi-squared test by using IBM SPSS 20.0. In total, 316 agendas were submitted. According to the Korean dental hygiene academic classifi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and the agendas associated with clinical dental hygiene (36.7%) were the b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classific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agenda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27.8%) were the best. In conclusion,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affiliated groups demanded similar research agenda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each establishment. However, the groups did not seem to show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establishment. In other words, the groups should corroborate such characteristics and suggest a corresponding agenda to establish specific areas of research in dental hygiene. Also, dental hygiene researchers should mark the academic classification of the studies they want to submit.

Key Words: Delphi survey, Dental hygiene academic classification, Dental hygiene research,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Research agenda

서론

한국 치위생학 교육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쳤다. 치

위생학 연구자들은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성을 확립하고, 치위생학을 고유의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치위생학은 1965년 세브란스병원 의학기술

Received: August 29, 2016, Revised: September 23, 2016, Accepted: September 27, 2016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Nam-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20 Ilisan-ro, Wonju 26426, Korea

Tel: +82-33-741-0391, Fax: +82-33-735-0391, E-mail: nami71@yonsei.ac.kr

Copyright © 2016 by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과 치과위생사 과정으로 시작하여, 1977년 전문대학에서 치위생과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교육기반을 닦았다^{1,2)}. 그러나 치위생학이 아직까지는 고유의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³⁾.

학문은 연구하고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정한 지식의 체계적 집합으로⁴⁾, 더 높은 교육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장되고, 정립된다⁵⁾. 치위생학은 응용학문의 하나인데, 응용학문은 사회적 요구나 정치적 상황에 기반을 둔 ‘업무(practice)’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과학(science)’의 두 축으로 이루어지며⁶⁾, 이 두 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치위생학이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즉,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치위생 업무가 발전되거나, 치위생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치위생학 연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술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1994년 치위생학 관련 단독 학회의 창립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2002년 4년제 치위생학 학사, 2006년 치위생학 석사, 2014년 치위생학 박사 과정이 생기고 수많은 치위생학 연구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치위생학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된 치위생학 연구는 치위생학 학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치위생학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아, 치과위생사의 연구만 존재할 뿐 치위생학에 기반한 연구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³⁾. 이는 초기 치위생학 관련 학회의 연구 방향이 치위생학 학문체계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것이 아니어서 학회의 문화나 회원의 성향에 따라 연구주제 선정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치위생학 연구 활동은 치위생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축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다.

치위생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연구의 세부영역이 확립되어야 한다^{7,8)}. 세부영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각 학회지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회원들이 그 학회의 특성에 맞는 연구주제를 투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 치위생학 전문 학회는 5개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회 별로 학술지를 창간하여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회 및 치위생학 관련 전문기관이 추구하는 연구방향이나 연구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및 산하단체의 관심 연구의제를 파악하여, 치위생학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치위생학문 분야별 연구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내 치위생학 관련 전문기관별 관심 연구의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치위생계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와 산하단체인 ‘한국치위생과학회’, ‘한국치위생학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의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회’의 회장 또는 대표자 총 8명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의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각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된 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치위생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YWDR-15-2-026).

2.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이 연구는 한국의 치위생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치위생학 관련 전문기관이 관심 있는 연구의제를 파악하려는 연구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설문지는 2회에 걸쳐 배포 및 수거하였고, 설문조사에 선행하여 연구의제의 각 영역을 ‘기초치위생’, ‘임상치위생’, ‘사회치위생’, ‘교육치위생’의 학문분류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으며, 각 분류 개념은 Table 1과 같다⁷⁾. 또 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에서 제안한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NDHRA)의 5가지 학문분류 중 ‘임상치위생’과 유사한 ‘임상치위생 처치’의 분류를 제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보건서비스’, ‘교육 및 능력개발’, ‘직업 환경’의 세부 분류

Table 1. Korean Dental Hygiene Academic Classification Concept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oncepts
Basic dental hygiene	• Oral anatomy • Oral function and lesion
Clinical dental hygiene	• Clinical dental hygiene care • Clinical dental service support • Dental service administration
Social dental hygiene	• Community dental public health • Oral health policy • Oral epidemiology and statistics
Educational dental hygiene	• Dental public education • Clinical psychology • Behavioral dentistry

Cited from the report of Yoo et al.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2014)⁷⁾.

Table 2.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Classification Concepts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oncepts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maintenance and disease prevention • Public health policy, advocacy and legislation • Development, validation and testing of instruments, strategies and mechanisms that demonstrate effectiveness.
Health servic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and reduce its cost • Address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s • Broaden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 Includes evidence-based information on health care outcomes, quality, and cost, use and access
Profess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al methods, curricula, students and faculty •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students and faculty • Promoting graduate education and career path option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actitioner as well as the patient exposure to risks, compliance, prevention issues and behavioral issues • Workforce recruitment and retention.

Cited from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2007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Forrest and Spolarich. J Dent Hyg 83: 18-32, 2009)⁹⁾.

로 각 분류에 따른 연구의제를 구체화하였다. 분류 개념은 Table 2와 같았다⁹⁾.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파악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한국 치위생학이 집중해야 할 연구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개방형 설문으로, 각 항목에 대해 연구 대상인 전문가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만들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ADHA에서 제안한 NDHRA와 2003년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Canadi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DHA)에서 제안한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를 참고용으로 포함하였고, 각 세부 분류별 예시를 제시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그 산하단체 회장에게 유선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2015년 4월 20일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주 후 수거하여 취합하였다. 취합된 연구의제는 4명의 국내 치위생(학)과 교수로 이루어진 내부 연구진이 2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전문가가 제시한 연구의제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3.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단체별로 제시한 연구의제를 수집한 결과, 치위생학 학문분류 및 NDHRA 분류의 연구의제 수가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ver. 20.0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한국 치위생학 학문분류에 따른 기관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를 대표하는 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치위생학 연구의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316개의 연구의제가 수집되었다. 그 중 ‘임상치위생’에 대한 연구의제가 가장 많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단체별로 한국 치위생학 학문분류에 따라 제안한 연구의제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대한치위생(학)교수협의회’는 기초치위생에 대한 연구의제를 15개(40.5%)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한국치위생학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회’는 임상치위생에 대한 연구의제를 각 18개(69.2%), 18개(45.0%), 14개(42.4%), 8개(28.6%)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위생과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는 사회치위생에 대한 연구의제를 각 18개(36.7%), 16개(34.0%), 21개(37.5%)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Table 3).

2. 미국 치위생학 연구의제(NDHRA) 분류에 따른 기관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NDHRA 분류에 따른 학회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단체별로 NDHRA 분류에 따라 제안한 연구의제 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4$). ‘한국치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의제를 각 12개(46.2%), 15개(45.5%),

Table 3. The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and the Affiliated Groups of 1st Delphi Results according to Korean Academic Classification of Dental Hygiene

Organization	Total	Basic dental hygiene	Clinical dental hygiene	Social dental hygiene	Educational dental hygiene	p-value (χ^2) ^a
Total	316 (100.0)	70 (22.2)	116 (36.7)	89 (28.2)	41 (13.0)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49 (100.0)	2 (4.1)	17 (34.7)	18 (36.7)	12 (24.5)	<0.001 (58.636)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47 (100.0)	10 (21.3)	12 (25.5)	16 (34.0)	9 (19.1)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6 (100.0)	8 (30.8)	18 (69.2)	0	0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40 (100.0)	6 (15.0)	18 (45.0)	10 (25.0)	6 (15.0)	
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	33 (100.0)	10 (30.3)	14 (42.4)	5 (15.2)	4 (12.1)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37 (100.0)	15 (40.5)	10 (27.0)	12 (32.4)	0	
Korea Society of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s	56 (100.0)	12 (21.4)	19 (33.9)	21 (37.5)	4 (7.1)	
Korea Society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28 (100.0)	7 (25.0)	8 (28.6)	7 (25.0)	6 (21.4)	

Values are presented as n (%).

^aChi-square test.

Table 4. The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and the Affiliated Groups of 1st Delphi Results according to US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Classification

Organization	Total	Health promotion/disease prevention	Health service research	Profess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tc.	p-value (χ^2) ^a
Total	316 (100.0)	88 (27.8)	82 (25.9)	77 (24.4)	55 (17.4)	14 (4.4)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49 (100.0)	8 (16.3)	10 (20.4)	17 (34.7)	9 (18.4)	5 (10.2)	0.054 (40.989)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47 (100.0)	11 (23.4)	12 (25.5)	11 (23.4)	10 (21.3)	3 (6.4)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6 (100.0)	12 (46.2)	6 (23.1)	4 (15.4)	4 (15.4)	0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40 (100.0)	6 (15.0)	11 (27.5)	15 (37.5)	4 (10.0)	4 (10.0)	
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	33 (100.0)	15 (45.5)	8 (24.2)	3 (9.1)	7 (21.2)	0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37 (100.0)	9 (24.3)	11 (29.7)	8 (21.6)	7 (18.9)	2 (5.4)	
Korea Society of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s	56 (100.0)	19 (33.9)	18 (32.1)	10 (17.9)	9 (16.1)	0	
Korea Society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28 (100.0)	8 (28.6)	6 (21.4)	9 (32.1)	5 (17.9)	0	

Values are presented as n (%).

^aChi-square test.

19개(33.9%)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한국치위생과학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연구의제를 각 12개(25.5%), 11개(29.7%)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회’는 교육 및 능력개발에 대한 연구의제를 각 17개(34.7%), 15개(37.5%), 9개(32.1%)로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Table 4).

고 찰

치위생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학회 창설 목적과 특성에 맞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세

부 학문을 확립시켜야 한다. 이에 세부학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관련 기관이 각각 원하는 연구의제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되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5년 7월 발표한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에 처음으로 ‘치위생학’의 분류가 독립적으로 등재되었고, 세부 분류로 ‘임상치위생학’, ‘사회치위생학’, ‘교육치위생학’의 분류가 등재되었다¹⁰⁾. 이는 치위생학 학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치위생학 연구자들 노력의 성과이다. 유사 학문인 간호학과 비교해보면, 간호학의 경우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에 38가지의 세부 학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학문에 해당하는 23개의 학회가 창설되어 세부 연구영역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¹⁾. 치위생계에서도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4개의 전문 학회가 창설되고 산하단체가 존재하지만, 회원들의 관심에 따라 연구주제가 결정되고, 연구결과가 투고되고 있다¹²⁾.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의 기관장들에게 필요한 연구의제에 대한 의견을 ‘한국치위생학 학문분류’와 ‘미국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제안한 치위생학 연구의제 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상치위생’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요구도가 가장 많았다(Table 3, 4). 이는 2014년 활동 치과위생사 25,262명 중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가 22,777명으로 약 90.2%의 활동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치위생’관련 연구의제가 가장 많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된다¹³⁾.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그 산하단체의 설립목적이 모두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함’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위생학의 목적이 대상자의 행동을 관리하고, 예방구강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구강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연구의제가 가장 많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의는 ‘기초치위생’과 ‘보건서비스 연구’에 대한 분류에 가장 많은 연구의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치위생(학)과 교수가 취득한 박사학위가 보건학박사(38.3%), 치의학박사(25.6%)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 세부적으로 제시한 연구의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치위생학 교육과정’, ‘치위생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창립 목적인 “치위생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교육정보교환을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장 및 자질 향상을 구연함으로써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이바지함”과 유사하였다.

한국치위생학회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는 ‘임상치위생’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련된 연구의제를 가장 많

이 제안하여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다. 한국치위생학회에서 제안한 연구의제의 주요 키워드인 ‘치위생 서비스’, ‘구강질환 예방법’은 한국치위생학회의 초기 창설(창설 시 ‘대한치위생교육학회’) 목적인 “치위생교육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¹⁵⁾”과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4년 12월까지 투고된 논문을 조사한 연구 결과, ‘사회치위생’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12,16)}.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는 유사하게 ‘치과위생사 직업 환경’, ‘치위생중재법’에 관련된 연구의제를 많이 제안하였다. 이는 창립목적인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 기술 개발 및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연구와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지도에 기여함”과 일치하였다.

대한치과위생학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회와 유사하게 ‘임상치위생’과 ‘교육 및 능력개발’에 대한 연구의제를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두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의제의 주요 키워드 또한 ‘치위생 서비스의 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로 매우 유사하였다. 이는 대한치과위생학회의 창립목적인 “치과위생학 및 치의학의 지속적인 연구 및 보급과 나아가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구강보건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과 일치하며, 임상회의 활동내용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사’, ‘병원 QI (quality improvement) 사례 발표’ 등과 일치한다. 치위생학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교육제도의 발전, 치과위생사 면허 및 자격제도,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치과위생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¹⁷⁾ ‘교육 및 능력개발’관련 연구의제가 많이 제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사회치위생’과 ‘교육 및 능력개발’에 대한 연구의제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는데, 주로 ‘치과위생사의 제도 개선과 업무범위’, ‘보수교육’에 관련된 연구의제가 많았다. 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위한 추진 사업인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치위생과학회에서 제시한 연구의제의 주요 키워드는 ‘기초치위생의 적용’, ‘치위생 서비스’였다. 이는 한국치위생과학회의 초기 창설(창설 시 ‘치위생과 구강생물학 연구회’) 목적인 “구강생물학 분야와 연관된 학문의 발전과 교육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과 유사하게, ‘기초치위생학’관련 연구를 통한 치위생학의 발

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안된 연구의제의 치위생학 학문분류에 따른 분포 결과, ‘사회치위생’과 ‘보건서비스 연구’에 가장 많이 분류되었다. 이는 ‘치위생과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4년 12월까지 투고된 논문 주제를 분류한 연구 결과, ‘사회치위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하였다^{12,18)}. 이는 한국치위생과학회의 목적이 “치위생학 및 연관 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바뀐 바뀐 변화로 생각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에서 제시한 연구의제는 ‘사회치위생’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분류에 많이 포함되었다. 보건회는 보건(지)소에서 공중구강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공직 치과위생사들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운영 및 공무원 윤리현장에 어긋남이 없이 최 일선에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 개선, 발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의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회에서 제시한 연구의제의 주요 키워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위생 관리’와 ‘치과위생사 업무’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각 기관 및 학회에서는 창설 목적과 유사한 연구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학회별로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치위생학 관련 기관이 ‘치위생학의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여, 각 기관의 특징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치위생학의 세부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학문 분류에 따른 각 기관 및 학회의 특성을 뚜렷이 하고, 그에 맞는 연구의제를 제시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각 학회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고, 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ADHA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Dental Hygiene과 같이 연구자가 논문 투고 시 연구주제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미리 분류하여 투고하게 한다면 연구자가 사전연구를 검색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의 기관장으로 한정하여, 기관장의 단독 관심 연구의제가 제시된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각 산하단체별로 제안한 연구의제 수가 최소 26개, 최대 56개로 차이가 있어 산하단체별로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치위생학 학문분류 중 ‘교육치위생’ 영역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강보건교육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교육 및 능력개발, 치위생학 교육과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의제의 분류가 중복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 치위생학 관련 전문

기관의 기관장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관심 연구의제와 연구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세부학문 정립을 위한 치위생학 관련 전문기관의 특성 확립을 제안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각 기관의 회원들이 연구 논문을 투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연구주제 선정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위생학 연구 분야의 고른 발전과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내 치위생관련 전문기관의 게재된 논문 현황 및 연구 과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치위생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세부영역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치위생학 관련 기관 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그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의제를 수집하여 연구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 총 8개 기관의 기관장에게 유선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전자우편으로 델파이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연구의제는 한국 치위생학 학문분류와 미국 NDHRA의 분류를 이용하여 분류하였고, IBM SPSS를 이용하여 기관별 분류된 연구의제 수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총 316개의 연구의제가 수집되었다. 한국 치위생학 학문분류로 연구의제를 분류한 결과 ‘임상치위생(36.7%)’에 관련된 연구의제를 가장 많이 제안하였고, 기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또 제시된 연구의제를 미국 NDHRA 분류로 분류한 결과 기관별 제시한 연구의제 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27.8%)’에 관한 연구의제가 가장 많았다. ‘기초치위생’에 관련된 연구요구는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에서 높았고, ‘임상치위생’에 관련된 연구요구는 한국치위생학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상회에서 높았으며, ‘사회치위생’에 관련된 연구요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위생과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회에서 높았다.

이상의 결과 각 기관에서는 창설 목적과 유사한 연구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사학문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치위생학관련 전문기관들은 비교적 기관별로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치위생학 연구의 세부영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치위생학 학문분류에 따른 특성을 뚜렷이 하고, 그에 맞는 연구의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투고 시

본인의 연구영역을 미리 분류하게 하여 세부영역을 확립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5년 한국치위생과학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2015-01) 받아 수행하였음.

References

1. Moon KS, Park JR: The histor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Seoul, pp.220-235, 2015.
2. Lee H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9: 808-823, 2009.
3. Chung WG, Kim EG, Choi EM, Jung JY, Kim NH, Jang SO: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in Korea.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Seoul, pp.82-96, 2009.
4. Weiss CH: The many meanings of research utilization. Public Adm Rev 39: 426-431, 1979.
5. Parse RR: Nursing: the discipline and the profession. Nurs Sci Q 12: 275-276, 1999.
6. Cobban SJ, Edgington EM, Compton SM: An argument for dental hygiene to develop as a discipline. Int J Dent Hyg 5: 13-21, 2007.
7. Yoo JS, Kang KH, Kim YN, Park JR, Lee SM, Jang JH: A study on academic classification formula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Seoul, pp.54-69, 2014.
8. Chung YK: A comparative study on the knowledge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and research classification. Social Sci Res Inst 3: 175-196, 1999.
9. Forrest JL, Spolarich AE: A delphi study to update the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ational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J Dent Hyg 83: 18-32, 2009.
10.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academic classification table 2015.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www.nrf.re.kr/nrf_tot/cms/show.jsp?show_no=182&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11. Korean Nurses Association. Retrieved August 10, 2016,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relations2.php>.
12. Lee GY: A review of dental hygiene research topic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6.
13. 2015 Year book of the Korean Dentistry. Dental Associ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Seoul, pp.89-104, 2016.
14. Kim EG, Lim SH, Kwon MY, Choi YY, Han JH: Analysis of tasks and education needs for dental hygienists for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Sci 14: 35-42, 2014.
15.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Bylaw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 1: 145-149, 2001.
16. Kang BW, Ahn SY, Kim SK, Yoo YS, Yoo EM, Lee SM: The research trends of paper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 10: 991-1000, 2010.
17. Kim HM, Lim SR, Bae HS: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14: 276-286, 2014.
18. Lee SM, Ahn SY, Han HJ, Han JY, Lee CS, Kim CH: The research trends of papers in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J Dent Hyg Sci 14: 67-73, 2014.